

‘보편적 시청권 시민간담회’ 열띤 토론

- 올림픽·월드컵 등 시청권 보장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 논의 -

보편적 시청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 공개 시민 간담회에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되는 등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0일 서울에서 올 6월 개최되는 ‘2026년도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관련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대국민 의견 수렴 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이탈리아에서 열린 ‘제25회 밀라노 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에 이어 북중미 월드컵을 80여 일 앞둔 현재 시점에도 방송사 간 협상이 난항을 겪음에 따라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중계, 국민에게 듣는다’를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조영신 동국대 교수는 ‘사라진 올림픽 열기, 보편적 시청권의 재정립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발제를 진행했다.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서울와이엠씨에이(YMCA) 등 시민단체와 방송미디어통신 전문가, 축구·빙상체육 관계자, 청년 등 13명의 간담회 참석자들도 바람직한 월드컵 중계 및 보편적 시청권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법 제도 현황과 영국·프랑스·독일 등 주요국들의 올림픽 및 월드컵 등 스포츠 중계 관련한 제도 분석, 국민 관심 행사의 지상파 방송 수단 확보, 온라인 보편적 시청권 보장, 코리아풀(Pool) 구성, 사전승인 제도 도입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 논의가 이어졌다.

KTV 국민방송을 통해 생중계된 이날 공개 간담회에서는 시민들의 논의 참여 보장을 위해 현장 참석자들에게 사전 질의서와 즉석 질의도 받으며 답변 시간을 가졌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관심 행사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보장은 방송법에 규정된 사업자의 중요한 책무"라며 "방송미디어 생태계 참여자들이 연대하고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방미통위는 이번 간담회 논의사항을 반영해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는 한편 공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법제 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 관련 공개 시민간담회’ 개최 계획

담당 부서	방송기반국	책임자	과장 직무대리	이정아 (02-2110-1270)
	방송미디어기반총괄과	담당자	서기관	김지권 (02-2110-1261)
			사무관	신창환 (02-2110-1266)



- 일시/장소 : '26.3.20(금) 10:00~ / 포스트타워(명동, 중앙우체국 대회의실(10층))
- 주 제 : '26년 북중미 월드컵 중계, 국민에게 듣는다
- 목 적 : 중계권 재판매 협상 관련 경과·제반정보 등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제공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공론의 장으로서 역할
- 참석자 : 조영신 교수 발제 및 시민단체, 청년, 방송미디어통신 전문가, 체육 관계자 등 13명

< 시민간담회 세부일정(안) >

구분		참석자
10:00~10:05	개회사	김종철 위원장님
10:05~10:10	기념촬영	참석자 일동
10:10~10:25	발제	조영신 교수(동국대 대우교수)
10:25~11:45	토론	<p>좌장 : 류신환 비상임위원</p> <p>시민단체 :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 윤명 사무총장(소비자시민모임), 한석현 시민중계실장(서울YMCA)</p> <p>전문가 : 이현율 교수(고려대, 미디어학과), 이종성 교수(한양대, 스포츠산업과학부), 광규태 교수(순천향대, 글로벌문화산업학과)</p> <p>체육계 : 이정섭 마케팅실장(대한축구협회), 박권일 컬링대표팀 감독(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회)</p> <p>청년 : 서재덕(청년자문단), 남철우(국민정책기자단)</p> <p>정부 : 곽진희 방송기반국장 직무대리</p>
11:45~12:00	질의응답	참석자 일동